

(가칭)모종중학교 신설 촉구 및 타당성 확보

#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2018. 10. 18.(목) 16:00
- 장 소: 아산시 신리초등학교 시청각실
- 주 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 목 차

## ■ 주제발표

- ☞ 아산시 모종동 중학교 설립을 위한 모색 ..... 1  
이상희(순천향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 지정토론

- ☞ 모종동 인근 중학교 신설에 대하여 ..... 7  
유춘자(아산모종캐슬어울림1단지 통장)
- ☞ 모종동의 중학교 신설을 기대하며 ..... 11  
천은정(아산시 신리초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 중학교 신설에 관련하여 ..... 13  
박봉일(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주제발표

# 아산시 모중동 중학교 설립을 위한 모색

이 상 희

(순천향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아산시 모종동 중학교 설립을 위한 모색

이 상 희 교수

(순천향대학교 특수교육과)

오늘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심화되고, 교육활동의 규모와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하게 복잡해지면서, 교육의 공공성이 증대되었다(정제영, 2016). 또한 교육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가 대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교육 시스템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공지능이 발달한 미래사회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창의성이 교육의 목표로 자리 잡을 것이며, 기계와 차별되는 인간 고유의 감성, 공감 능력 등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고민은 당장 학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학교장 연수, 국내·외 미래교육 연구와 같은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미래 교육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반영되어 교육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하였고, 개별 학교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산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1인당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 총생산)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고, 천안에 약 2배(아산시, 2009)에 해당하고, 아산시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충남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충청남도, 2011). 특히, 2012년 기준으로 아산시 중학생의 6%에 해당하는 322명이 아산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특성화고로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다.(충청남도 교육청, 2012).

더욱이, 아산시 모종동 및 풍기동일대 중학교 현황은 온양여자중학교(공립, 풍기동), 온양한울중학교(사립, 권곡동) 2곳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모종1통에서 모종17통의 인구수는 20,349명으로 온양3동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천안시의 경우 5곳 모두 공립에 해당하며 천안 봉서중학교(1991년 설립), 쌍용중학교(1998년 설립), 불당중학교(2004년 설립), 월봉중학교(2008년 설립), 불무중학교(2017년 설립)로 행정구역 별 중학교가 설립되어있고 불무중학교는 작년 불당 신도시가 마련되면서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추어보면 아산시의 모종동

및 풍기동 일대는 매년 인구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신도시 형성에 해당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누려야 할 학교 선택 권리(이병환, 2002; 박새훈, 1998)가 지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공립학교 체제 교육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이지역의 학생들은 학교 통학 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등교 및 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안전사고 등이다.

따라서, 아산지역 모종동 및 풍기동 지역의 현황 및 규모,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아산시 모종동 및 풍기동의 중학교 설립은 매우 필요하다. 중학교 설립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 기회를 통하여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현장 교사, 관련 학교기관 등의 요구를 조사 및 분석하여 적합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 자료>

아산시(2009). 2009년 아산시 GRDP 추계결과 요약.

충청남도교육청(2012). 학교현황(2012. 9. 1. 기준)

정제영(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학교제도 개선 방안. 교육정치학연구, 24(3), 53-72.

## 지정토론

☞ 모중동 인근 중학교 신설에 대하여

유춘자(아산모중캐슬어울림1단지 통장)

☞ 모중동의 중학교 신설을 기대하며

천은정(아산시 신리초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박봉일(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 모종동 인근 중학교 신설에 대하여

유 춘 자 통장

(아산모종캐슬어울림 1단지)

모종동일대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모종동 인근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저희 주변 단지만 봐도 총7단지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산시에서도 모종동은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 됩니다.

당연히 중학교가 있어야 할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없으니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저희 모종동으로 이사를 올까 고민이며 수년 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께서도 중학교로 진학해야 하는데 중학교가 없는 이곳으로 이사를 올까요?

학교가 먼 중학교생을 둔 학부모라면 장거리 통학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래는 저희 아산시의 0~19세까지의 인구 현황입니다

행정기관	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계
아산시	17,213	19,779	17,093	16,973	71,058
염치읍	213	285	279	260	1,037
배방읍	4,550	5,150	4,412	4,164	18,276
송악면	56	213	195	154	618
탕정면	1,504	1,922	1,425	1,195	6,046
음봉면	1,560	1,373	875	769	4,577
둔포면	1,386	1,081	748	576	3,791
영인면	72	103	143	207	525
인주면	164	233	216	243	856
선장면	28	44	72	96	240
도고면	58	85	88	140	371
신창면	970	1,218	1,057	1,161	4,406
온양1동	608	419	349	383	1,759
온양2동	115	221	259	406	1,001
<b>온양3동</b>	<b>2,108</b>	<b>2,688</b>	<b>2,416</b>	<b>2,435</b>	<b>9,647</b>
온양4동	727	1,082	1,202	1,352	4,363
온양5동	1,332	1,616	1,488	1,702	6,138
온양6동	1,762	2,046	1,869	1,704	7,381

0~14세까지는 약 7,212명 19세까지는 9,647명으로 통계가 나오며 배방을 다음으로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도보로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는 중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제가 거주하는 모종동, 온양3동에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아산시에서는 꽤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며 특히 인근의 중학교는 도보로 도저히 통학을 할 수 없는 거리에 있어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아산중학교도 도보 통학 시 약30 가량이 소요 되며 대중교통편도 좋지 않아 많은 학부모들이 자차를 이용하여 자녀들을 학교로 통학 시켜주는 피곤함까지 있습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많으며 아산시 기준과 충청남도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여자 중학교와 남녀공학 또한 위와 같은 수치로 확인 됩니다.

또한 모종, 풍기지구 개발로 인하여 모종동 택지지구에 대단위의 단지가 들어 설 예정입니다.

당연히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라도 학교용지 확보부터 사전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 조속하게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뿐 아니라 학교 부족으로 인하여 새롭게 이주해 오는 주민이 없다면 그야 말로 아산시와 저희 모종동은 주거 가치까지 하락하여 결국에는 유령도시로의 변화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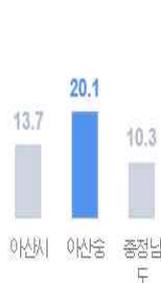
중학교가 신설이 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 세대가 이주를 나가지 않고 중학교가 있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새롭게 이주해 오는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모종동은 살기 좋은 동네로 더욱 더 거듭날 것입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중학교가 없는 동네로 이사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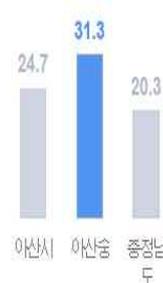
아산중학교 공식  
www.asan.cnems.kr

설립구분	단설 중학교 (사립)
설립일자	1946년 5월 22일
학생수	844명 남 844명, 여 0명
교원수	47명 남 25명, 여 22명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21
대표전화	041-545-3173
행정실	041-542-3171
교무실	041-545-3173

교사당 학생수



학급평균 학생수



학생 남녀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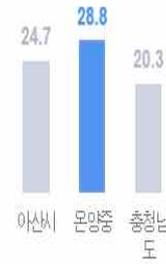
온양중학교  공식  
onyang.cnems.kr

설립구분 단설 중학교  공립  
설립일자 1947년 5월 20일  
학생수 750명 남 750명, 여 0명  
교원수 54명 남 19명, 여 35명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48  
대표전화 041-536-4455

교사당 학생수



학급평균 학생수



학생 남녀 성비



오세현 아산 시장님, 여운영 도의원님의 선거 공약으로써 사전 용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중앙 투자 심의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전 신리초등학교 신설 부지로 인한 잡음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시청과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인 신설 추진바랍니다.

두 행정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중학교 신설 계획이 조속하게 수립되고 신설 진행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 모종동의 중학교 신설을 기대하며

천 은 정 부회장

(아산시 신리초등학교 학부모회)

최근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인구유입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인구절벽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시책 사업과 정책으로 인구유입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 2008년 6월말 241,847명 ⇒ 2018년 6월 말 328,658명(1년 평균 9,000명씩 증가)

무엇보다 타 지역에서 젊은 세대의 많은 유입으로 평균 나이 38.1세(전국 평균 41.2세, 충남 평균 42.2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이며, 미취학 아동 및 학령(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할 나이)인구가 매우 많은 미래의 주역들이 자라고 있는 활기차고 살아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산시와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젊은세대 유입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해 미래를 예측하고 학교설립계획 등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2016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받은 『2030년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여유로운 삶, 넉넉한 일자리가 있는 풍요로운 아산”이라는 미래상과 함께 계획인구가 65만 명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유로운 삶, 좋은 일자리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모종동,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양3동에 살고 있는 학생 비율이 아산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모님 차량을 통해 통학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과 같은 대중교통의 편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모종동이 살기 좋은 지역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종동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중학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모종동 캐슬어울림아파트 주변 7개 단지 아파트 세대만 하더라도 약 5,000세대이며, 버스터미널 부근 지역까지 합한다면 더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8년 현재 0세~14세 아이들은 약 7,000여명으로 배방읍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아산시 택지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향후 캐슬어울림 단지 건너편으로 대 단지 아파트 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유입은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아산시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 또한, 충청남도 평균 20.3명보다 훨씬 많은 평균 31.3명으로 이미 과밀 상태로 나쁜 교육환경과 여건에서 아산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무엇보다 미래의 중학생이 될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곳 모종동에 중학교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산시청과 충청남도교육청 특히, 아산교육지원청 담당자 분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여서 중학교 설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죠?

몇 년전 인근 배방지역 과밀학급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담당기관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대처로 인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해당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많은 아산시민들이 천안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였습니다. 배방에 사시는 제 지인분들도 그해에 자녀 학교문제로 인해 천안시민이 되었습니다.

요즘 아산 맘카페나 모종동 아파트 카페 등에서도 중학교 통학이 쉽지 않아 타지역으로 이사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도 많이 하고, 학교문제로 미리 천안으로 이사갔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중·고등학교 통학문제로 타지역 이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우리 아산시 모종동 중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오세현 시장님의 공약인 “아산시 인구 유입 50만”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항상 모종동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운영 도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고, 오세현 아산시장님과 여운영 도의원님의 공약사항인 “모종동 중학교 신설”이 꼭 지켜지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박 봉 일 행정과장

(아산교육지원청)







